

민주, 검찰 이재명 대표 재소환에 “국면전환용 소환조사쇼”

“검찰, 진상 규명 아닌 망신 주기 몰두” 추가 소환엔 “혐의 입증 실패한 방증”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을 두고 “검찰이 시간이 끝났다”며 “망신 주기, 국면 전환에만 혈안이 됐다”고 규탄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

고 있음이, 진상 규명이 아닌 망신 주기에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열한 언론플레이,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서슴지 않던 수원지검은 정작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조사는 ‘시간 끌기’로 점철됐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이미 답한 질문을 다시 반복했고 김성태 등 검찰에 압박당하는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아무 관계 없는 경기도정 관련 이야기가

지 늘어놓으며 시간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태로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 전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시간이 모자란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고질병인 ‘공무상 비밀누설’도 반복됐다”며 “조작 수사에 기반해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반복해 놓고는 언론에는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했다’는 등 피의사실 유포

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찰을 향해 “아무 증거가 없음이 5차 조사에서 낱알이 드러났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또 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또 한 번 국면전환용 ‘소환조사’쇼를 벌이기 위해 일단 시간이라도 끌겠다고 작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순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알이 국민 앞에 밝히고 조작 수사의 주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 재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방증”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추가 소환을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수사가 2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혐의 입증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정치 검찰의 정치 사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검찰이 이 대표 추가소환일을 12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추가 혐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윤 “한미일 협력, 인태지역 큰 기여” 바이든 “윤, 협력 이끈 주역”

윤-바이든, G20서 하루 동안 세 번 만나
G20 정상 만찬서 옆자리...1시간만 대화
윤 “한미일 협력, 3국에 양질의 일자리”
바이든 “3국 국민 삶에 좋은 영향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G20 정상회의의 갈라 만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아 1시간 30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 공고화가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 3국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우리의 협력으로 3국 일반 가정의 국민들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

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대기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의 재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며 “지난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할 수 있어 보람이었다”고 화답했다.

이후 각자 G20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던 중 오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농담을 건네며 윤 대통령 손을 잡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감한다. 동시에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역사를 만들자”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의 갈라 만찬에서 세번째로 만났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제5기 여수시 청소년의회 포문 열어

8일 개원식 열고 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마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5기 여수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8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이번 청소년의원들은 이전 기수와 마찬가지로 관내 초·중학생 20명이 여수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개원식에서는 김영규 의장이 청소년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에 대한 기초 교육 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을 지방의회와 실제 동일한 절차로 진행했다.

이날 선거로 김윤지(여수여중2) 학생이 의장에, 정효선(진남여중2) 학생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김효정(웅천초6) 학생은 초등부인 제1상임위원장, 정유림(여천중3) 학생은 중등부인 제2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

다. 9일, 10일, 16일에는 2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토의를 통한 정책 발굴, 제안 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후 수료식을 열게 된다.

김영규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구”라며 “청소년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청소년의회는 여수시의 정책에 대해 지역 청소년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운영된다. 여수=김현근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